

중세조선어의 일부 격토들에 쓰인 《ㅎ》에 대한 이해

최 승 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력사와 문화를 옳게 연구하고 정리하는 사업은 오늘 우리 나라의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김일성전집》 제14권 454페이지)

옛 문헌의 실제적인 언어자료에 기초하여 우리 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것은 언어사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말은 정밀하고 짜인 문법구조를 가지고있다.

우리 말의 옛 문헌들에는 단어의 말줄기나 단어내부 그리고 토에 《ㅎ》이 쓰인것이 적지 않다.

중세조선어의 일부 격토들에 쓰인 《ㅎ》에 대한 이해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주격토에 쓰인 《ㅎ》의 변화이다.

16세기초의 《로결대》(상), 《박통사》(상)와 17세기 중엽의 《로결대언해》(상), 《박통사언해》(상)를 분석한데 의하면 주격토에 《ㅎ》이 결합된 《히》가 《박통사》(상), 《로결대》(상)에는 모두 86회 쓰이였으나 《박통사언해》(상), 《로결대언해》(상)에는 모두 59회 쓰인것으로 보아 주격토 《히》가 점차 적게 쓰이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주격토에 쓰인 《ㅎ》은 《히》로 17~18세기에도 쓰이였다.

○ 시내길히 ...버더잇다(송강가사)

○ 갈 길히 머도 멀샤(송강가사)

○ 〃히 不足거든(로계집)

《박통사》(상), 《로결대》(상)에 쓰인 《히》는 《박통사언해》(상), 《로결대언해》(상)에서 변화가 없이 그대로 쓰인 실례도 있지만 《히》가 다른 토로 바뀌어 쓰인것, 기본적으로 주격토 《이》로 바뀌어 쓰인것 등이 있다.

○ 네 갈히 드〃녀(《박통사》 상, 87)

네 칼이 드〃냐 (《박통사언해》 상, 82)

(교체됨)

○ 갈히 무뒤료(《박통사》 상, 87)

칼이 무뒤리오 (《박통사언해》 상, 82)(교체됨)

우의 실례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박통사》의 주격토에 쓰인 《ㅎ》는 《박통사언해》에서 《ㅇ》로 바뀌어 쓰이였다.

이 시기 대격토에 《ㅎ》가 결합된 《□》, 《홀》도 쓰이였다.

○ 나홀 비러오라(《로결대언해》 상, 33)

《ㅎ》는 체언이 모음 《ㅏ》, 《ㅑ》나 반모음 《ㄹ》로 끝나는 경우에도 쓰이였다.

○ 압뵈히 지나가고(고산유고)

○ 나라히 이시니(홍길동전)

중세조선어의 일부 격토들에 쓰인 《ㅎ》에 대한 이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대격토에 쓰인 《ㅎ》의 변화이다.

《박통사》, 《로결대》와 《박통사언해》, 《로결대언해》를 비교분석한데 의하면 대격토 중에서 《을》과 《를》이 가장 많이 쓰이고 《□》, 《홀》은 그보다 훨씬 적게 쓰이였다. 《□》, 《홀》이 훨씬 적게 쓰이게 된것은 주로는 그것이 《ㄹ》로 끝난 명사나 수사, 복수토뒤에 쓰이는 제한성을 가지고있기때문이었다.

○ 네 길홀 〃워 〃고(《로결대언해》 상, 67)

○ 하나홀 두어 방보게 〃라(《로결대언해》 상, 60)

○ 여긔 둘홀 머물워 짐들 보게 〃고(《로결대언해》 상, 101)

○ 물읏 우리 짐들홀 收拾 〃기를 극진히 〃고 (《로결대언해》 상, 105)

○ 다 〃 드 〃 작도 〃나홀 비러오라 (《로결대언해》 상, 33)

《박통사》(상), 《로결대》(상)에는 《홀》, 《□》과 같은 뜻을 나타내는 《홀》도 쓰이였으나 17~18세기에는 쓰인 례가 없다.

○ 둘홀 〃야 〃모라(《로결대》 상, 56)

- 몬져 들호로 여(《로결대언해》 상, 101)
- 뽕갓홀 ㅁ오져니(《박통사》 상, 32)
- 칼을 ㅁ고져호되(《박통사언해》 상, 35)

대격로 《홀》은 15~16세기에 쓰이다가 17세기이후에는 쓰이지 않았다.

15~16세기 대격로로 《를, 을》뿐아니라 《ㅁ, ㅁ》, 《홀, 홀》도 쓰이었는데 17세기 중엽부터 《홀》은 쓰이지 않았으며 《홀》도 17세기 중엽까지는 쓰이었으나 그후에 사라지고 말았다.

- 아미를 저사(《룽비어천가》 79)
- 디내사(《룽비어천가》 48)
- 몬져 들홀 ㅁ야(《로결대》 상, 56)
- 네 길홀 ㅁ워고(《로결대》 상, 37)
- 네 므슴 밥을 머글다(《로결대언해》 상, 36)
- 나홀 두어 방보게 ㅁ라(《로결대언해》 상, 60)
- 을 먹이라(《로결대언해》 상, 62)

중세조선어의 일부 격로들에 쓰인 《ㅎ》에 대한 이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속격로에 쓰인 《ㅎ》의 변화이다.

17~18세기에 속격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 희》가 일부 쓰인것을 볼수 있다.

- 집뒤.· 무리양이 낫낫치(《박통사언해》 상, 78)
- 발우희 三壯식 ㅁ되 (《박통사언해》 상, 74)
- 二十里.· 다.라(《로결대언해》 상, 53)
- 길.· 사ㅁ ㅁ티(《청구영언》 403)
- 담우희 ㅁ당이 ...이(《박통사언해》 상, 77)

우의 실례에서 《.·, 희》는 17세기이전의 문헌들에서는 《희, 헤, 해》로도 쓰이었다.

《희, 헤, 해》는 17세기에 여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토였다.

16세기와 17세기 문헌들을 비교해보면 주격의 의미를 가진 《.·》가 17세기에 《의》로 쓰인것이 있다.

- 관원.· ㅁ근 ㅁ요수울(《박통사》 상, 4)
- 官人들의 비즌 ㅁ흔 술을(《박통사언

해》 상, 8)

우의 실례에서 《박통사》의 《관원.·》의 《.·》가 《박통사언해》에서는 속격로 《의》로 바뀌어 쓰이었다.

속격로가 여격로로 쓰인것이 있다.

- 부리우.· 추모로(《박통사》 상, 26)

부리에 춤으로(《박통사언해》 상, 30~31)

- 보.라온 시웁ㅁ우희 ㅁ쌍 명록비첻 비단으로 (《박통사》 상, 57)

부드러운 시웁ㅁ에 ㅁ쌍 ㅁ빛ㅁ(《박통사언해》 상, 57)

우의 실례에서 《박통사》의 《부리우.·》, 《시웁ㅁ우희》의 《.·/희》는 모음 《ㅏ》 다음에 쓰이었으며 그것이 《박통사언해》에서는 여격로 《예/에》로 바뀌어 쓰이었다.

속격형태가 변화없이 쓰인것이 있다.

- 우희 제웁둑고 보로기로 동이고(《박통사》 상, 112)

우희 제웁둑고 ㅁ보로 기.고(《박통사언해》 상, 104)

- 발우희 세붓식 ㅁ ㅁ긔ㅁ도의게 ㅁ니(《박통사》 상, 76)

ㅁ발우희 三壯식 ㅁ되 잇긔ㅁ되게 ㅁ니(《박통사언해》 상, 74)

여격형태가 속격형태로 바뀌어 쓰인것이 있다.

- 집뒤헤ㅁ물양이 난나치(《박통사》 상, 81)

집뒤.· ㅁ무리양이 낫낫치(《박통사언해》 상, 78)

- 천리 ㅁ해 테가석 ㅁ리나 목노라(《박통사》 상, 106~107)

二千里.· 더긔가 석.을 머물면(《박통사언해》 상, 100)

우의 실례들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희》는 일정하게 두시기 문헌들에서 바뀌어 쓰이었다. 그중에서 속격형태가 여격형태로 바뀐것과 여격형태가 속격형태로 바뀌어 쓰인것이 가장 많다.

《.·, 희, 해, 헤》는 줄기의 끝소리에 관제없이 다 쓰일수 있다. 그중에서 《해》는 《박

통사》(상), 《로결대》(상)에서는 30회 쓰이었고 《박통사언해》(상), 《로결대언해》(상)에서는 겨우 6회밖에 쓰이지 않았다. 이것은 《해》가 17~18세기에 와서 점차 쓰이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와 《희》는 16세기초의 두 문헌들에서 모두 16회 쓰이었는데 17세기 문헌들에서는 10회 쓰이였다. 이 《해, 해, 희》의 특징은 일부 모음 다음에 쓰인것이다.

17~18세기 조선어의 위격토에는 《애서/에서, 예서, 서》, 《셔/의서》, 《게서/의게서》, 《기서/게서》가 있다.

《ㅎ》가 끼여들어간 형태들인 《해서/해서》, 《.셔/희서》들도 얼마간 쓰이었는데 그 수는 많지 않다.

《로결대언해》(상), 《박통사언해》(상)에는 《해서》가 3회, 《.셔》, 《희서》가 각각 1회씩 쓰이였다. 이 문헌들에서 《해서》는 쓰이지 않았다.

《로결대》(상), 《박통사》(상)에는 《해서》가 7회, 《희서》가 2회 쓰이였다.

○ 밋□.셔 언멧 갑소로 사(《로결대언해》상, 23)

○ 내 遼東쟈안해서 사노라(《로결대언해》하, 155)

○ 겨집이 안.셔 자□거시여(《박통사언해》상, 76)

우의 실례에서 《ㅎ》는 자음 《ㄴ》다음에 쓰이였다.

《박통사》, 《로결대》에 쓰인 《해서》는 《로결대언해》, 《박통사언해》에서 《해서/.셔, 에서》로 쓰이고 《희서》는 《에서》로 교체되어 쓰이였다. 이것은 16세기의 《해서》가 점차 《에서》의 방향으로 변해갔다는것을 보여준다. 《ㅎ》가 결합된 위격토는 《박통사언해》와 《로결대언해》에 모두 7회 쓰이였다.

중세조선어의 일부 격토들에 쓰인 《ㅎ》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조격토에 쓰인 《ㅎ》의 변화이다.

17~18세기 조선어의 조격토에는 《로/으로/로》, 《로셔/로셔/으로셔》, 《로/로/으로》가 있었다.

줄기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에 《ㅎ》가 결합된 □로, □로셔, 흐로, 흐로셔가 쓰이였다.

17~18세기 조선어 조격토의 기본형태는 《로/로/으로》였으며 이와 함께 《로셔/로셔/으로셔》, 《로/로/으로》, 《□로/흐로, □로셔/흐로셔》도 쓰이였다.

이 토들은 16세기의 일부 문헌들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17~18세기에 와서는 행동의 출발점이나 수단의 뜻을 나타내는 조격토로 활발히 쓰이였으나 자격의 뜻으로 한정되지는 않았다. 《ㅎ》가 결합된 《흐로》, 《흐로셔》도 이 시기에 쓰이였으나 많이는 쓰이지 않았다.

○ 세오리 노흐로 제대로 .으□거시여(《박통사언해》상, 78)

○ 우흐로 향□야(《가례언해》1, 38)

○ 고려□흐로셔 온(《박통사언해》상, 65)

○ □흐로셔 온거시로다(《박통사언해》상, 131)

○ 뒤흐로셔 타물(他物)을 □□야(《증수무원록언해》3, 18)

우의 실례에서 《ㅎ》는 모음 《ㅏ, ㅓ, ㅗ, ㅣ》다음에 쓰이였다.

《로결대언해》(상, 하)와 《박통사언해》(상)를 분석한데 의하면 《흐로》가 10회, 《로셔/으로셔》가 5회, 《흐로셔》가 4회정도 쓰이였다.

《ㅎ》가 결합된 조격토는 17세기 중엽의 책들에는 《흐로, 흐로셔》가 쓰이고 16세기초의 책들에는 《호로, 호로셔, 후로》가 쓰이였다. 이 《호로, 호로셔, 후로》의 《호, 후》가 17세기 중엽의 책들에서는 《흐로, 흐로셔, 로/으로》로 교체되어 쓰이였다.

특히 《로》형의 토에 《ㅎ》가 끼인 □로/흐로는 쓰인것이 보이지 않는다.

○ 우후로 (《로결대》상, 10)→우흐로(《로

결대언해》상, 18)

○다 돌호로(《로결대》상, 36)→다 돌로(《로결대언해》상, 64)

○호로서(《로결대》상, 51)→호로서(《로결대언해》상, 91)

○옥돌호로(《박통사》상, 137)→玉石으로(《박통사언해》상, 125)

중세조선어의 일부 격토들에 쓰인 《ㅎ》에 대한 이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구격토에 쓰인 《ㅎ》의 변화이다.

구격토에도 《ㅎ》가 융합된 《과(ㅎ과)》가 있었다.

○소내 뵤과 돌과 잡고(《월인석보》7, 36)

우의 실례에서 《뵤과, 돌과》는 동격으로 이어주는 대상을 나타낸다. 《과》는 《ㅎ》와 《과》의 융합형이다.

16세기까지는 《과》가 비교적 많이 쓰이었는데 17세기에 와서는 《과》가 《과》나 다른 토로 교체되어 쓰인것이 적지 않다.

○비단 □자과 석자반(《박통사》상, 94)

비단 □자과 석자반(《박통사언해》상, 89~90)

○허근 아.~과 아랫사(《박통사》상, 101)

저근 아.~들로 애서 下人들에 니□리(《박통사언해》상, 95)

○양열과 수울 열항을 보내더라(《박통사》, 90)

十羊과 十酒□ 드리더라(《박통사언해》상, 85)

《박통사》와 《로결대》에 쓰인 구격토 《과》가 같은 위치에서 《박통사언해》와 《로결대언해》에서는 구격토 《과》로 쓰이였다.

○선□과 □야(《로결대》상, 6)

선비들과 □□서(《로결대언해》상, 10)

○아.~과 아랫사(《박통사》상, 101)

六少家眷과 저근 아.~들로(《박통사언해》상, 95)

《ㅎ+과→과》로 이루어진 《과》는 극히 적게 쓰이였다.

○눈과 코과 입과(《내훈》중, 1, 12)

중세조선어의 일부 격토들에 쓰인 《ㅎ》에 대한 이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호격토에 쓰인 《ㅎ》의 변화이다.

중세조선어에는 호격토에 《ㅎ》가 결합된 호격토 《하》도 있었는데 17세기에 와서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

호격토 《하》는 17세기 중엽에는 모두 《아》로 바뀌어 쓰이였다.

○쥬□하 다□□ 드□ 작도 □나 비리오고려(《로결대》상, 19)

쥬인아 다□□ 드□ 작도 □나홀 비리오라(《로결대언해》상, 34)

○쥬□형님하 쇼□이 □□마리이시니(《로결대》상, 52)

쥬인형아 少人이 □□말이 이시니(《로결대언해》상, 93)

우의 실례에서 《박통사》, 《로결대》의 《하》는 존경하는 대상에 쓰이였지만 《박통사언해》, 《로결대언해》에서는 호격토 《아》로 교체되어 쓰이였다.

《로결대》(상, 하), 《박통사》(상)에 쓰인 《하》가 《로결대언해》(상, 하), 《박통사언해》(상)에 《아》로 교체되어 쓰인것이 23회나 있다.

○쥬□하 네 어□□마□ 니□□뇨(《로결대》상, 51)

쥬인아 네 어□□말을 니□□뇨(《로결대언해》상, 91)

○쥬□형님하 쇼□이 □□마리 이시니(《로결대》상, 52)

쥬인형아 少人이 □□말이 이시니(《로결대언해》상, 93)

중세조선어에서는 《ㅎ》가 격토뿐만아니라 도움토를 비롯한 일부 토들에서도 쓰이였다.

도움토의 경우 특징적인것은 수사나 《ㄹ》로 끝나는 말줄기뒤에 《흔, □, 혼》이 쓰이다가 17세기 중엽이후에는 《흔》으로만 쓰인것이다.

○□나흔 즈름이러라(《로결대》하, 15)

□나흔 즈름이러라(《로결대언해》하, 141)

○둘흔 □살 나그내오(《로결대》하, 15)

둘흔 □살 나그내오(《로결대언해》하, 141)

이상에서 《ㅎ》가 쓰인 격토들이 그 부류의 다른 토들과 의미에서나 쓰임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세조선훑어에서 일부 격토들에 《ㅎ》음을 더 쓴것은 체언의 끝음절이 《ㄱ》나 《ㅌ》, 《ㄴ》, 반모음 《ㄹ》 등으로 끝나는 경

우인데 그것은 일정한 어음적조건에서 더 나타나는 《ㅎ》음을 표기한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 말 토에 대한 역사적연구를 심화시켜 매 토들의 특성과 쓰임, 의미와 그 호상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우리 말의 우수성을 론증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